

‘강진백운동전시관’ 내달 4일 공개...

강진군의 새로운 문화시설인 ‘강진백운동전시관’ 조성 사업이 완료돼 지역의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월출산 아래 풍경이 좋기로 이름난 지역에 자리 잡은 강진백운동전시관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지하식 구조로 설치돼 명승인 백운동원림과 어우러진 양식으로 건축됐다. ‘강진백운동전시관’은 오는 10월4일 준공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오는 10월4일 준공식을 갖는 강진백운동전시관 조감도.



(강진군 제공)

현대미술·보물급 유산 어우러진 월출산권 랜드마크 ‘우뚝’

정약용-원주 이씨 ‘우애’ 상징 유물 100여점 상설 전시 지역 대표 新 명소...체험·전시 등 문화시설 역할 기대

전시관이 조성된 곳은 원주 이씨 문중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터전으로, 강진군은 2017년부터 원주 이씨 문중과 함께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진백운동전시관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 1천507㎡, 건축면적 920㎡다.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실, 티 가든, 뮤지엄숍,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자랑한다. 전시관 지상 1층은 티 가든을 중심으로 체험 학습실, 뮤지엄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이 가장 좋은 장소다. 상부를 포함한 주변이 대부분 유리로 돼 있어 월출산과 백운동원림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으며 상쾌한 개방감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전시실은 현대 작가의 설치 미술품과 함께 보물급 유산인 동강공이

의경 초상화 진본과 함께 이의경이 사도 세자에게 하사받은 시가 전시돼 있다. 상설전시실로 들어서면 백운동원림 홍보 영상 ‘백운동 시간의 길을 걷다’ 코너로 회의실과 영상실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나온다. 이 곳을 지나 상설전시실 본관으로 향하면 백운동 건물을 모티브로 한 디오라마와 유유자적하는 처사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

돼 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현장감 있는 전시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다산 정약용과 깊은 우애를 알 수 있는 유물을 포함해 100여점의 원주 이씨 소장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운동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 ‘디지털 강진의 빛’은 환상적인 빛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영상으로 압도적인 몰입감과 영상미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은 “강진백운동전시관을 시작으로 월출산 탐방로 개설, 야외쉼터 설치 등 연속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더불어 강진숲 체험 인프라 조성 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업으로 월출산 권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강진의 핵심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신안 ‘낙서마을’...세계적 작가 빌스 참여 ‘눈길’

압해농협 본관 후면 드릴 작업...초대형 작품 완성 염전·노동자 얼굴·애기동백 등 지역 정체성 담아

신안군이 압해읍 일원에 ‘위대한 낙서마을(GRAFFITI TOWN)’을 조성 중인 가운데 세계적인 작가 빌스가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포르투갈 출신의 빌스(Vhils)가 압해농협 본관 후면에 초대형(8m×10m) 작품을 작가의 조형 언어인 드릴로 벽에 단차를 만들어 음영을 주는 작품으로 지난 12일부터 22일에 걸쳐 작업을 완성했다. 빌스(Vhils)는 포르투갈이 겪었던 혁명의 아픔과 이에 따른 도시 벽면들의 변화에 인상을 받았고 벽면을 파내는 테크닉으로 주로 자화상을 그려내며, 얼굴을 통해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나 도시에 특정한 주제를 탐구해 해당 지역 사람들을 표현

한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이번 작업에서는 신안군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고심해 ‘염전과 노동자의 얼굴’을 주제로 익명의 여성 노동자의 노고를 섬세한 얼굴로 표현했으며, 압해도를 대표하는 ‘애기동백’ 꽃을 표현하는 등 신안과 압해도의 정체성이 빌스(Vhils)만의 독특한 작업 세계관으로 잘 나타나 있다. 빌스(Vhils)는 “이번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들이 대담적으로 접근하고 예술과 연결되길 바란다”며 “이번 작품은 700번째이며 특별하고 의미 있어 작품 하단 좌우로 사인 두 개를 남겼다”고 애정 어린 소감을 남겼다. 압해읍의 한 주민은 “세계적인 작가가 빌스(Vhils)가 작업한다는 소식이 그



를 보기 위해 작업 현장을 방문했는데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사인도 받을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좋다”며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담은 아름다운 그라피티 작품들이 완성돼 신안군을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담은 아름다운 그라피티 작품들이 완성돼 신안군을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고수온 대비’ 해남, 전북·김 어장 예찰 강화

현장 대응반 운영...“양식장 관리·김채묘 시기 조절 당부”

해남군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과 김양식 등 어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역은 지난 8월 2일 진도군 울돌목-죽림리-해남군 땅끝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동예찰반을 운영하는 등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천500만원을 투입, 차광막과 액화산소 등 고수온 예방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4억6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 대응반을 운영, 수온 모니터링-예찰을 강화해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

등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에는 수온을 직접 확인하고, 양식어업인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가동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과 함께 어장 예찰에 나섰다. 또한 해남군은 김 양식 시기가 다가오며 따라 김 양식 적기 채묘 지도에도 나섰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 채묘예보에 따르면 9월 상순 수온은 27.6℃로 전년 대비 0.9℃, 평년 대비 3.1℃ 고수온으로 불규칙적인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수온의 변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수온 변화추이를 보며 최적시기인 22℃ 이하에 채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채묘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최

행감 결과 보고·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등

영광군의회가 지난 2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2일까지의 사일정에 들어갔다. 24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고의건 1건,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보고했으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실시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영진 의원은 제1차 본회의 안건상

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김강현 의장은 “쌀값 안정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공비축미로 거둬들일 쌀 배정 물량 확대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군, ‘치매 극복 주간 행사’ 치매인식개선·검진사업 홍보 무안군은 “최근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치매 극복 주간행사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9월21일 치매 극복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다. 무안군은 지난 9월부터 22일까지 치매 극복 주간으로 지정, ‘치매에도 괜찮아!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전광판, 현수막,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또한 추석 명절 전인 9일에는 무안전통시장, 11일에는 일로전통시장을 방문해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과 함께 치매인식개선 전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무안=김성호기자



목포상의, 청년 노동시장 진입·성장 기반 마련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 개강

목포상공회의소는 24일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공모, 지난 9월 운영 기관에 선정돼 추진됐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며 직무 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무교육 과정에는 총 30여명이 모집

됐으며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전직무교육(40시간) 및 멘토링이 이뤄진다. 30일부터는 희망하는 기업에서 8주간 인턴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HD현대사호, MC에너지(주)(목포도시가스), 다나온제기복지센터, (주)대창식품, 명도복지관, 목포수산업협동조합, 목양, (주)목포해상게이블가, (주)보원, 씨월드고속웨드라, 지원제거복지센터, (주)케이씨 등 16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심층 직무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기후변화 대응’ 완도군, 섬 숲 경관 복원 사업 완료

고급면·약산면 5만여 본 식재

완도군은 24일 “고급면 청용리와 약산면 해동리 2개 지구 20ha의 산림에 16억원을 투입, ‘2024년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온난·습윤한 서남해안 지역에 적합한 난대·상록

활엽수림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식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도군은 사업 대상지에 향토 수종인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활엽수 5만여 본을 식재했다. /완도=윤보현기자

